

News

은행 대출금리 한눈에 비교... 신용점수별 금리정보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6일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다음달부터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한눈에 비교... 가계대출 금리산정 체계 투명성 기여한다는 목적 전반적인 월별 변동추이 확인... 가계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하기로... 개선된 예대금리차 공시는 7월 금리정보분부터 적용 예정

은행 “만기연장·상환유예 끝나도 연체율 확대 가능성 적어”

경향신문

은행 등 금융사들, 코로나19 사태로 시행 중인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에 끝나도 부실대출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는 적다는 뜻 전달 다만 금융 여건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으로 금융비용 증가해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표현

국민은행 앞서는 은행권 ‘모바일인증서’... 하반기엔 우리은행도 가세

이코노미스트

주요 시중은행들, 모바일인증서 시장에 도전장... KB국민은행 KB모바일인증서 가입자 수 총 1,115만명 기록... 작년말 가입자수 960만명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 하반기에는 우리은행까지 새롭게 인증서를 출시해 경쟁에 뛰어든 예정... 은행들의 플랫폼 기업으로의 성장전략과 연관

신한銀, 라임 사태로 3개월 업무일부정지·57억 과태료

헤럴드경제

금융위원회,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간 정지... 과태료 약 57억원 부과 관련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 CEO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 관련해서는 향후 판결 확정된 후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 예정

보험사, 예정이율 올릴까 '노심초사'

전자신문

보험사 임직원들, 가장 관심있는 부분이 내년도 예정이율 어느 정도로 정해질까하는 점...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고금리가 일반화되는 모습 금감원의 평균공시이율 높여 보험료 인하 유도하려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 특히 생보사들 긴장 중... 한번 정해진 예정이율은 바뀌지 않기 때문

실손 의료자문 공정성 논란... '풀' 만들면 해결될까

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 생보 및 손보협회와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의료자문 풀 구성 검토 중...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등에게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행위 종립적 의료자문단 구성을 통해 의료자문 제도의 공정성 확보한다는 계산... 올해 4월까지 보험사들이 실시한 안과 의료자문 건수는 4,312건

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다우키움 신규 지정

이투데이

금융위원회,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등 7개 기업집단을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 매년 7월까지 지정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지만 비주력업종 자산이 5조원 미만으로 지정에서 제외된 기업집단에는 KTB, 현대해상... 비주력업종 자산 규모 증가시 추가 지정 가능성

공매도 거래대금 큰 폭 증가해 6000억원대 '근접'

글로벌이코노믹

지난 6일 기준 주식시장 내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 5,902억원 기록... 전 거래일보다 938억원 증가한 금액 유가증권시장에서 789억원 증가, 코스닥 시장에서 148억원 증가.. 외국인인 73.20%로 전일비 감소하고 기관이 23.20%로 증가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